

佛語의 現狀과 性格에 관한 考察

高 元 禧

目 次

- | | |
|-----------------|-------------|
| 1. 序 言 | 6. 形體論 |
| 2. 音聲의 인 側面 | 7. 統辭法 |
| 3. 音節에 관한 側面 | 8. 프랑스語의 性格 |
| 4. 同音異義에 관한 側面 | 9. 結 言 |
| 5. アクセント에 관한 側面 | |

I. 序 言

어떠한 言語의 構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몇個의 言語에 共通되는 特質에 의해서 그 言語의 性格을 規定지을 수가 있을 것이다. 現代 유럽의 諸言語는 거의 2,000년에 미치는 끊임없는 接觸 속에서 그 生命을 維持해 왔다. 그 때문에 一國民과 他國民間의 關係가 이들 諸言語의 發展에 影響을 미치게 한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事實上 유럽의 몇個의 言語에 共通되는 흐름과 傾向을 考察해 본다는 것은 比較言語學的인 側面에서 諸言語의 特性과 性格을 把握하는데 必要不可欠한 研究의 課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一例로 古代프랑스語와 中世高地 독일어에서는 文中의 動詞의

位置가 同一한 것이었다. 動詞는 이들 두가지의 言語에 의해서는 文의 第二의 位置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結果 文全體를 支配하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語의 性格을 考察할 때 問題가 되는 것은 우리들의 判斷, 他言語(예컨대 독일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등)와의 比較가 相對的인 側面에 치우치게 되는 點은 不可避한 일이겠으나, 本稿에서는 共時的인 觀點에서 프랑스語의 特性和 現狀에 대해서 考察해 보고자 한다.

II. 音聲의 인 側面

프랑스語의 發音속에서 注目해야할 것은 모든 音素가 明瞭, 明晰, 節度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事實이다. 그것은 一部分 프랑스語의 調音의 基盤이 特히 口腔의 앞 部分에 있다는 事實에 의한 것이다. 독일어, 영어는 이에 反해서 口腔後部에서 調音되며, 그로 因해서 그 音은 口腔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된다. 프랑스語의 音은 입에서 直接 나오기 때문에 무언가 보다 輕快하고 直接的인 音色을 지니고 있다. 또한 프랑스人들은 입의 内部의 筋肉을 緊張시키지만, 영국人들은 調音할 때 筋肉이 보다 緩慢해진다. 그 때문에 불란서人의 경우는 極히 規律이 바르지만, 영국人의 경우는 매우 規則에 억매이지 않은 印象을 주고 있다. 그런데 불란서人이 規律이 바르다는 것은 그 努力을 表面에 나타내지 않는다. 그것은 緊張의 作業이 거의 口内部에서 完成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일사람 중에는 얼굴의 움직임에서 그와같은 作業이 表面으로 나타내는 사람도 있다. 이와같은 숨어있는 規律이 프랑스語 朗誦法에 대해서 優雅하다는 秘訣中の 하나가 되고 있다. 筋肉이 強한 緊張은 母音이나 子音에 대해서도 影響을 주고 있다. 仏語는 英語에서 볼 수 있는 바와같은 不明確한 母音은 없다. 한 母音의 調音이 잇따라 계속되는 동안 發聲器官은 계속해서 그 位置를 保存한다. 따라서 母音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性格을 가지지만, 그에 反해서 英語의 母音은 器官의 移動의 結果 二重母音 또는 三重母音으로 變하고 만다. 仏語는 모든 母音이 明瞭한 音色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曖昧하고 不明瞭한 母音은 存在하지 않는다. 또한 仏語는 二重母音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그 特色이다.¹⁾ 이와 同一한 현상은 子音에 대해서도 言及할 수 있다. 仏語의 子音은 強하고 激烈하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힘으로 調音된다. 그러나 그 힘은 自制된 힘인 것이다. 仏語의 子音은 有聲音이나 無聲音이나간에, 또한 閉鎖音이나 持續音이나 간에 모두 거의 같은 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有聲과 無聲間의 差異는 언제나 確實히 나타난다. 독일어의 *fʰsʰ*는 仏語의 *fʰsʰ*보다는 길이가 약하다. *feu, fils, son*의 語頭 子音이나 *chiffon*의 두가지 子音등은 集中的인 힘을 가지고 發音되지만, 그에 比해서 독일어의 *fisch* (물고기)의 普通의 *f*는 무언가 緩慢한 面을 가지고 있는 것 처럼 생각된다. 英語나

1)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따금 *aéré*나 *réussir*와 같은 母音接續을 취하는 두가지 母音의 發音中에서 二重母音으로 들리는 경우가 있다.

獨語의 閉鎖音은 aspiration (氣息音)이 따르게 되나, 仏語에서는 그와같은 현상은 없다. 仏蘭西人은 "t"를 發音할때 우선 口腔을 모든 方向으로 閉鎖시킨다. 그러나 獨逸人은 口腔의 下部 다시 말해서 聲門의 部分을 열린채 그대로 둔다. 그 結果 佛蘭西人은 "t"밖에는 만들어내지 못하지만, 獨逸이나 영어의 "t"다음에는 空氣의 흐름이 肺에서 잇달아 나와서 "th"를 만들어 낸다. 仏語의 發音이 節度가 있다는 印象을 강하게 주고있는 것은 그 때문인 것이다. t, p, k는 매우 確實히 만들어 내지만, 게르만諸語와 같은 過剩性은 없다. 게다가 仏語에서는 二重母音이 存在하지 않는거와 같이 獨逸어 또는 이태리어의 ts, tš, dž, ph (Ex: 이태리어: razza (民族), caccia (사냥), raggio (光線), 獨逸어: pharrer (牧使) 등과 같은 두가지 子音의 結合도 또한 許容치 않고 있다.²⁾

Ⅲ. 音節에 關한 側面

音節上으로 考察할때, 仏語와 獨逸語 사이에 存在하는 하나의 根本的인 差異點에 부더치게 된다. 大部分의 音節은 불어에서는 母音으로 끝나고 있으나, 獨逸어에서는 子音으로 끝나고 있다. (불어의 音節의 例: < Je / l'en / ten / dais / ve / nir / a / vec / ses / gros / sa / bots >) 仏語의 音節은 대체로 하나의 母音과 거기에 先立되는 하나 또는 두개의 子音에 의해서 構成되고 있다. (Ex: détacher, très) 獨逸어는 이와 反對現象이다. 獨逸어에서는 아주 빈번하게 두개 또는 셋, 경우에 따라서는 네가지의 子音이 音節끝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Ex: gern (기꺼히), Fürst (君主), ernst (양전한)) 그런데 子音으로 끝나고 있는 仏語의 音節을 詳細히 檢討해 보면, 그 大部分은 라틴語로 부터의 借用語에 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Ex. altitude (여기에 대해서 haut [古代 프랑스語 halt]에서는 l는 母音化되었다), justice (여기에 대해서 fête [古 프랑스語 feste]에서는 s는 中世末頃에 사라졌다), excursion (여기에 대해서 éclairer [俗 라틴語에서는 exclariare]) 라틴語가 後世에 까지 미치는 影響이 없다면, 이와같은 型的 音節은 훨씬 더 많아졌을 것이다. 音節의 本質과 呼吸의 參與 運搬者는 母音이다. 仏語의 大部分의 音節이 閉音節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이들 音節이 그 힘을 두번째의 最後의 音節에 集中하고 있다는 것을 意味하고 있다. 仏語의 音節

2) 이와같은 Groupe는 예를 들어 toute chose, cette session, frappe fort 등과 같이 두 낱말이 接觸하는 경우에 이따금 나타나지만, 그렇다고 獨逸어나 이태리어와 같은 groupe와는 本質적으로 相異하다. 獨逸어, 이태리어에서는 事實上 古代프랑스어처럼 一應으로 發音되며 同一音節의 一部分을 이루고 있다. 現代프랑스語에서는 이에 反해서 第1의 要素는 第1音節의 一部分을 이루고 있다. 現代프랑스語에서는 tut-soz 이지만 古代프랑스語에서는 a-tše-ter (acheter) 다만 "tsar"와 같은 現代의 借用語만은 例外的인 現象이다.

은 악센트를 終末에 移動케 한다. 그것은 語尾에 악센트를 가지는 構造 즉 oxyton이다. 이 法則은 最小單位인 音節에도 또한 中間單位인 訃말에도 作用하는 것을 考察해 볼 수가 있다. 왜냐하면 訃말 全体속에 支配的인 것은 最後의 音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統辭法의 研究를 推進하는 가운데 이 法則이 文中에 따른 要素間의 關係에도 價值를 가지고 있다는 點을 理解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이 oxyton의 性格은 仏語에서는 單位가 크든지 또는 작든지 간에 優位를 차지하고 있다. 독일어의 大部分의 音節은 그에 反해서 閉音節이다. 즉 音節은 그 힘을 처음 部分에 集中한다. 그것은 語尾에 악센트를 가지지 않는 構造 즉 baryton이다. 그러므로 그것이 또한 訃말의 악센트法에 의해서도 優位를 차지하고 있는 性格인 것이다. 여하튼간에 仏語의 文形成의 基礎가 되고 있는 單位는 訃말이 아니라 "리듬段落"이다. 예컨대 la première offre 같은 하나로 이어진 訃말속에는 하나의 강세악센트 밖에는 없다. 하나로 이어진 訃말은 하나의 全体를 構成하고 있다. 그래서 그 語群의 内部에는 각 訃말이 서로 配어놓을 수가 없다. 音은 어디서나 끊어지지 않는다. 그 結果 première의 r은 다음 音節에 連結된다. 이와 같이 해서 그 自体로서는 子音으로 끝나고 있는것 처럼 보이는 音節이 大部分은 그 子音을 다음 音節에 양도한다. 요컨대 閉音節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또한 독일어와 불어는 完全히 對立되는 現象을 이루고 있다. 독일어에서는 각 訃말이 얼마간의 獨立性을 保存하고 있다. 語頭의 母音에 의해서 訃말에는 거기에 先行되는 訃말과 連結케 되는 危險性이 있다 하더라도, 그 訃말에는 語頭를 明確히 나타내는 特殊한 音이 주어지는 것이다. 또한 독일어에서는 訃말이 母音으로 시작되는 경우마다 音이 中斷된다. 그것은 母音 接統的인 效果를 낳게 한다. 불어에서는 그와 같은 種類의 音의 中斷은 許容치 않는다. 불어에도 語尾母音과 다음에 뒤따르는 語頭母音의 두 가지 母音을 區別하고 分離할 수 있는 方法이 없는것은 아니나, 그것은 音의 높이나 또는 音調상의 가벼운 差異뿐이며 별로 두드러진 方法은 아니다. Ex. ① J'ai été [e-e], ② il y a eu un [a-ü]. 이러한 母音의 連統은 매우 부드러운 音의 抑揚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같은 仏語의 音節構造는 어떤 면에서 單調함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특히 불어의 母音이 결코 長音으로 되지않고, 또한 半長音과 短音間의 差異도 大体로 極히 사소하기 때문에 한층 그러한 감을 느끼게 한다. 그러면서도 그 不適合性은 母音의 音色이 極히 多様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仏語에는 적어도 16가지의 相異母音이 있으며 이태리語(7)의 2倍以上, 스페인語(5)의 거의 3배가 된다. 따라서 이태리語와 스페인語를 比較해 볼 때 仏語의 母音體系는 매우 豊富함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다. 그러나 仏語의 모든 訃말 다시말해서 이태리語와 스페인語의 모든 訃말과 相互 比較해 볼 때 놀라운 多様性을 찾아볼 수가 있다. 14世紀와 15世紀에 거의 모든 語尾母音과 語尾子音을 喪失한 仏語는 다른 言語에서는 볼 수 없을만큼 訃말의 音聲部分을 縮少시키고 말았다. 母音體系의 異常한 多様性은 仏語全体속에서 極히 確實케 한 機能 요컨대 다른 訃말의 區別을 可能케 하는 機能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다음 열가지 訃말을 살

펴보고자 한다. 1) pis(pi), 2) pu(py), 3) pou(pu), 4) peu(pϕ), 5) peau(po), 6) pain(pɛ̃), 7) paix(pɛ), 8) pont(pɔ̃), 9) pas(pa), 10) pan(pã). 이들 낱말은 母音에 의하지 않고는 區別되지 않으나, 거기에 對應되는 이태리語 또는 스페인語의 각 낱말은 각각 그들 낱말에 適應하는 語尾를 지니고 있으며, 語幹母音에 따르는 部分에 의해서 相互 區別된다.

불 어	이 태 리 語	스 페 인 語
pis	<i>peggio</i>	peor
pu	<i>potuto</i>	podido
pou	<i>pidocchio</i>	piojo
peu	<i>poco</i>	poco
peau	<i>pelle</i>	piel
pain	<i>pane</i>	pan
paix	<i>pace</i>	paz
pont	<i>ponte</i>	puente
pas	<i>passo</i>	paso
pan	<i>panno</i>	pañó

만약 仏語가 上記한 多數의 母音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많은 낱말이 音聲의으로 同一한 것이 되어 버렸을 것이다. 그것은 온갖 母音이 調音할때의 明晰性·明瞭性의 維持와 直接 關係가 있다. 다만 古代 仏語가 後에 消滅하는 語尾의 母音이나 子音을 가지고 있으면서 二重母音을 添加하여 現代 仏語 以上の 母音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여러가지 観点에서 古代 仏語가 커다란 通稱性和 豊富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은 現代的인 하나의 観点에서 볼 때 無益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요컨대 特異한 存在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如何간 開音節, 二重母音의 欠如, oxyton的인 性格등이 現代 仏語의 特徵을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가 있을 것이다. 끝으로 古代 仏語와 現代 仏語와의 顯著한 差異點을 確認해 보고자 한다. 古代 仏語의 chanter, renart, chaut, feste의 發音을 現代語로 對應하는 낱말과 比較해 보면, 많은 音節이 閉音節에서 開音節로 옮겨가는 現象을 볼 수가 있다. 古代 仏語는 多數(16)의 二重母音을 가지고 있었으며, 두가지의 三重母音까지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單母音이 되고 말았다. (Ex. couteau 「古代 仏語 kouteau, 現代 仏語 kuto」 結局 古代 仏語는 매우 많은 "paroxyton"을 가지고 있었으나, 現代 仏語에서는 語尾의 "e"의 脫落에 의해서 그것들은 모두가 "oxyton"으로 변하게 된 것이다.

IV. 同音異義에 관한 側面

리듬段落의 内部에는 낱말이 發音上 前後의 낱말과 相互連結되어 있으며, 처음 낱말의 語尾子音은 가능한 限 다음 낱말에 연관된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빈번하게 病理的인 現象 즉 文意가 曖昧하게 되는 現象을 낳기한다. 一例로,

- ① Il a une femme qui l'aime (qu'il aime)
- ② trop heureux (trop Peureux)
- ③ l'admiration (la demi-ration)
- ④ Il est ailleurs (Il est tailleur)
- ⑤ Il est ouvert (Il est tout vert)

유럽의 다른 諸言語에는 仏語만큼 意味를 잘못 把握하기 쉬운 言語는 없다. 또한 어떠한 言語도 仏語만큼 同音異義의 傷處를 입고 있는 言語도 드물다. 예컨대 英語에서도 ① pen (펜), ② pen (동물의)울, ③ pen (백로의)압늬, ④ pen [속어] (교도소) 등 同音異義의 現象은 各國의 言語에서 흔히 찾아볼 수는 있으나, 불어의 경우는 심한 現象을 나타내고 있다.

(Ex : ① ver (벌레) ② vert (초록색의) ③ vers (頃 ...쪽에) ④ vers (詩句) ⑤ vair [中世의] (다람쥐의) 毛皮) ⑥ verre (유리) etc)

同音異義의 被害의 研究가 特히 Gallo-roman 語의 領域에 대해서 行해지고 있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³⁾ 그러므로 어떤 言語의 病理學은 確實히 그 言語의 性格에 대한 가장 깊은 特質을 밝혀야 한다. 仏語는 上述한 바와같은 危險을 낱말의 選擇이나 文의 配列에 의해서 回避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나 또한 仏語에서 配慮하지 않으면 안되는 問題點이 있다. 그것은 仏語의 母音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音節構造의 單調함에 의해서 仏語로서 使用될 수 있는 音節의 數는 顯著하게 制限되고 있는 것이다. 그 때문에 極히 종종 같은 音節을 되풀이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있다. 一例로 un secret qu'on confie [kō - kō] 또한 종종 낱말의 緊密한 結合에서 어색한 一連의 音節이 생길 수도 있다. (Ex : "Loue-I'en", "Je ne sais si c'en sont") 이와같은 不協和音의 危險性은 다른 言語보다도 仏語가 한층 더 심하며, 이에 대한 問題點을 內包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

V. 악센트에 관한 側面

仏語의 發音이 매우 節度가 있다는 것은 악센트의 使用法에도 미치고 있다. 仏語의 악센트는

3) J. Gilliéron et M. Roques: ① Etudes de géographie linguistique, Paris, 1914.
② Pathologie et thérapeutique verbales, Paris, 1921.

正確하게 부쳐지지만, 그렇다고 다른 音節을 弱하게 하지는 않는다. 그 アクセント는 音樂的인 音程과 強勢에 의해서 同時に 나타나며, 이들 두가지의 要素가 緊密하게 融合되고 있다. 一例로 “Il parlait bien” 이라고 하는 하나의 리듬段落에서는 最後의 音節이 다른 音節보다도 약간 높은 音程에 놓여지며, 강하게 發音된다. 여기에 反해서 독일어는 音樂的인 音程과 強勢가 極히 對立되는 現象을 이루고 있다. 一例로 “Er will fortgehen” (그는 떠나기를 원하고 있다.) 라고 하는 文에서는 強勢アクセント가 音節 fort에 놓여지나, 그 音節은 다음에 오는 音節보다도 낮게 發音된다. 독일어에 비해서 불어의 말투가 調和가 있고, 매력이 있으며, 含蓄性이 豊富하다고 느껴지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인 것이다. アクセント法, 다시 말해서 正常的인 アクセント法은 순수하게 律動的인 機能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表現的 價值를 가지지 않는 完全히 傳統的인 것이다. 그런데 仏語에는 變則的인 アクセント法이 있으며, 그 アクセント法은 普通 アクセント가 놓여지는 音節以外的 音節에 놓여진다. 예컨대 아주 강한 感動을 받은 경우 “C’est épouvantable” 라고는 말하지 않고, 두가지의 アクセント를 (-pou와 -table에)를 붙여서 “C’est épouvantable” 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와같은 感情-感情이 アクセント法에 影響을 주고 있지만—에 基因되는 感動 アクセント 以外에 다른 理由에 있어서 리듬段落의 普通アクセント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그것은 明瞭함을 求한다든지, 또는 어떤 概念을 相對方에게 강한 印象을 주고자 하는 경우 어떤 表現的 價值를 불러 일으켜 할 때 생기는 強調アクセント가 있다. 그러면 強調의 アクセント와 感動의 アクセント間에는 어떠한 差異點이 나타날 것인가?

強調의 アクセント는 언제나 리듬段落의 第1音節에 加해진다. 그것은 그 音節이 意味上으로 무언가 重要性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나타낼 경우가 있다. (Ex: officiel et officieux) 그런데 感動의 アクセント는 特히 極端的인 大小, 善惡, 美醜 때로는 主觀的인 印象, 個人的인 感情등을 暗示하는 表現속에서 볼 수 있다. 그 アクセント는 기꺼이 發音의 第二音節을 抑하지만, 그 位置는 固定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 アクセント가 加해지는 音節의 格한 調音에 의해서 特徵을 이루게 한다. 表現의 情意的인 힘은 正常的인 調音을 變形케 한다. 만약 그 音節이 子音으로 시작되는 경우 그 子音은 長音化된다. 만약 그 音節이 母音으로 시작되는 경우는 그 母音은 聲門閉鎖音에 先立되어 그 閉鎖音은 子音이 長音化되는 경우와 같은 役割을 하게 된다. (Ex. abominable) 요컨대 正常的인 アクセント法은 두가지 힘의 影響을 받고 變容되는 것이다. 感動의 アクセント는 情意生活에 由來된다. 그 アクセント를 통해서 感情은 intonation 속에 끼어든다. 強調의 アクセント는 意志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다.⁴⁾ 다시 말해서 가르킬려고 하는 意志, 自己의 생각을 밀고 나갈려고 하는 경우, 어떤 事實을 어떤 方向으로 誘導하려는 意志의 產物인 것이다. 正常的

4) 이 アクセント는 慣例的으로 知的 アクセント (accent intellectuel) 라고 불리우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見解다. 순수하게 그 自體로서 充足할 수 있는 思想에는 이러한 アクセント는 놓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인 악센트는 이에 反해서 소위 平凡한 것이며, 예외적인 것이나 傳統을 나타내며, 때로는 情愜性도 宣傳의 意慾을 안갖는 순수한 思想을 나타내고 있다. 이 두 악센트의 機能은 確實히 相異한 現象을 이루고 있다. 正常的인 악센트는 期待되고 있는 악센트이며, 傳統의이며, 옛부터의 리듬을 나타내는 악센트이다. 그러나 다른 두 악센트 즉 情愜的 또한 意志的 악센트는 期待되지 않는 악센트이며, 傳統에서 벗어난, 不意에 나타나는 악센트이다. 그 악센트에 의해서 各個人은 個人的인 感情에 充滿해 지며 內的인 世界를 表明한다. 그러면 놀라운 事實은 仏語가 이들 악센트를 각각 모두 살려서 變則的인 악센트는 傳統的인 악센트를 결코 破壞시키지 않으며 또한 傳統的인 악센트는 情愜的·意志的인 악센트가 그 役割을 다 하는 것을 결코 妨害하지 않는다는 事實인 것이다. 이와같은 事態는 בל란서人的 均衡을 이룬 精神的인 反映인 것이다. 한편 傳統的인 路線은 斷切될 것 처럼 보이지만, 實은 그 路線은 強力히 維持되고 있으며 그 때문에 個人이 抹殺되지 않고 있다. 仏語의 악센트는 בל란서 國民의 天賦의 才能에 대한 驚歎할만한 姿勢를 보여주고 있다. 事實上 악센트는 文中에서 가장 커다란 重要性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意味上의 一單位를 構成하는 몇가지 낱말을 整理하는데도 도움이 되며, 또한 文의 다른 部分사이의 關係를 把握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各文은 하나 또는 몇개의 리듬段落에 의해서 構成되고 있다.

Ex: "Il m'a écrit"(1段落)

"Il m'a écrit avant-hier"(2段落) 2段落)

文의 움직임은 特別 音樂的인 것이다. 一般적으로 하나의 리듬段落의 第1音節에서 最後의 音節을 向해 音은 上昇한다. 그러나 文의 最後의 段落은 例外이며, 거기에는 下降의 傾向이 있다. 보통 文의 第2部는 第1部보다도 낮은 音調로 시작되며, 音도 그만큼 높지 않다. 한 文章의 上昇部와 下降部와의 사이에는 一上昇部와 下降部에서는 길이가 아주 다를 수도 있지만 一 散文의 경우에도 詩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一種의 句切이 있다. Ex. "Je suis venu / trop tard // dans un monde / trop vieux."라고 하는 十二音綴의 詩句와 다음과 같은 散文을 比較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Dans l'échange / de ces phrases brèves // il y avait autre chose / qu' un simple adieu." 또한 intonation 만으로 文의 意味가 理解될 수 있는 경우도 흔히 있다.

"Il sait donner des coups"와 "Il s'est donner des coups."라고 하는 두 文은 調音上으로는 同一하다. 다만 第1의 文은 세가지의 리듬段落에 의해서 構成되고 있으며, 第2의 文은 2가지의 리듬段落에 의해서 構成되고 있다고 하는 事實만으로 文意를 決定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Elle a été chanter à Paris"는 "Elle a été chantée à Paris"와 똑같이 調音되지만 intonation에 의해서만이 이들 두가지 文이 區別되는 것이다. 또한 흔히 있따라 일어나는 두가지 文의 關係는 쓰여져 있는 것 만으로는 捕捉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것은 귀로 들으므로 理解가 되는 경우이다. 예컨대 아주 不完全한 文章 즉 "plus de joies,

plus de chansons"의 두 部分을 같은 調音으로 發音해 보면 "잃어버린것"라고 하는 單純한 列挙에 지나지 않는다(더 以上 기쁨이 없다면, 그 以上 노래도 들을수 없다) 그러나 第1의 部分의 音程의 높이를 第2의 部分에서 낮추게 하면 이들 두가지 部分 사이에 原因과 結果의 關係가 成立된다. (더 이상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노래도 들을 수 없다) 이와같은 intonation은 思想의 極히 纖細한 道具가 된다는 것을 理解할 수가 있다.

VI. 形 態 論

屈折諸言語는 名詞에 몇가지 다른 形態를 주게 하는 特性을 지니고 있다. 名詞이란 몇가지 部分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한가지 部分은 觀念 그 自体를 表現하지만, 다른 部分은 別途의 觀念과의 關係, 文이 됨으로써 비로서 그 分析이 可能케 되는 表象全體에 대한 스스로의 位置를 나타낸다.

(라틴語 campus, -i, -o : 독일의 feld, -es, -e 밭, 밭의, 밭에) 라틴語의 regis amicus (왕의친구)와 같은 表現에서는 -is라고 하는 要素는 第1의 名詞을 第2의 名詞에 結合시키는 機能을 가지고 있다. 이와같은 觀點에서 仏語의 性格을 規定지어보면, 먼저 仏語가 le champ, du champ, au champ [les champs, des champs, aux champs, un champ, de beaux champs (ləʃa, dyʃã, oʃã, lɛʃã, deʃã, oʃã, œʃã, dəboʃã) 라고 말하는 것을 認定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仏語에서는 여기서 問題가 되고 있는 關係가 一種의 接頭辭에 의해서 表現되고 있다. 確實히 라틴語의 体系는 完全히 살아지고 있지 않다.

d'excellents amis (dekseľã - zami)에서 形容詞의 最後의 s가 複數를 나타내고 있다. 複數는 末의 "z"의 音에 의해서 表明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와같은 경우는 그렇게 빈번하지 않다. 複數의 s는 連音하는 경우 以外는 機能을 다하지 못한다. 그래서 連音은 오늘날에는 어떤 特定の 경우(人稱代名詞+動詞(또한 冠詞+名詞등)) 以外는 오히려 稀귀한 現象이다. 名詞과 動詞간에는 連音現象을 일으키지 않으며 名詞에 後置된 形容詞과의 사이에도 連音은 行해지지 않고 있다. (Ex. des amis excellents) 따라서 아직까지 殘存하고 있는 語尾變化의 重要性은 그만큼 크다고는 말할 수 없다. -ail 및 -al로 끝나는 名詞은 그 複數形이 -aux가 된다. (Ex: cheval-chevaux, émail-émaux) 그러나 이와 같은 種類의 語尾變化도 顯著한 損傷을 받으면서 이들 語尾가 -al로 끝나는 많은 名詞가 複數形에서 -als가 되고 있다. (Ex: bal(s), pal(s), carnaval(s), récital(s), régál(s) etc) 또한 oeil-yeux, boeuf-boeufs, oeuf-oeufs 처럼 孤立된 경우도 있다. 이들 名詞은 複數가 語末子音의 消失과 一種의 母音轉換에 의해서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形容詞의 語尾變化는 아직도 보다 현저하게 나타나 있는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는 表

現해야 할 關係가 問題 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두개의 낱말사이의 一致가 問題가 되고 있는 點에 注意를 要하고 있다. (Ex : une maison blanche) 와 같은 경우 形容詞의 位置가 名詞와 形容詞의 關係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서 그것은 語未의 』는 아니다. un travail facile 와 une tâche facile 의 경우에는 두 형용사가 명사의 性을 区分해주시지 않는다. 女性形은 서로 아주 다른 여러가지의 方法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Ex. muet - muette, frais - fraîche, faux - fausse, beau - belle, eau - belle, bon - bonne, long - longue etc.

이와같은 形容詞의 屈折體系는 오늘날에는 매우 多様하며 또한 不統一한것 처럼 보인다. 그것은 表現價值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口頭言語에서 書記言語로 옮기는 事態는 一變한다. 形容詞는 (facile 같은 型을 除外해서) 女性形에는 -e 를 붙치며, 名詞와 形容詞는 複數形에 -s 를 붙인다. 書記言語는 적어도 複數形의 形成에 관해서는 語尾變化의 虛構를 維持하고 있다. 따라서 書記言語와 口頭言語사이에는 명백한 不統一性이 存在한다. 勿論 書記言語가 時代에 뒤떨어져 있는 現象이기 때문에 그것은 書記法이 전혀 낡은 것이 되어있기 때문이다. 形態적으로도 殘存한 것이 無益한 것이 되어있기 때문에 한층 그 事實은 語尾變化에 不利한 立場이 되고 있다 事實 læ myr (le mur), le myr (les murs) 와 læ kanal (la canal), le kano (les canaux) 를 比較해 보면 le kano는 læ myr가 하나의 方法으로 複數의 標示를 하는데 反해서 두가지의 方法으로 表明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드물게 孤立된 낱말 (canal, canaux 같은 낱말)은 體系全體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그 體系가 欠陷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意味는 아닌 것이다. sans amis (sã zami) 여기서는 名詞의 數를 區別한다는 것이 不可能하게 되고있다. 現代仏語의 屈折體系中에는 限定要素가 被限定辭에 先立되고 있다. 즉 처음에 어떤 觀念에 대해서 다른 觀念과의 關係가 表明되며, 그후에 가서 觀念 그 自体가 나타나게 된다. 악센트가 觀念을 나타내는 部分에 놓여지며, 關係를 表明하는 部分에는 놓여지지 않는 것은 물론이다. le frui de fã [les fruits des champs] 중에서 de(des)는 두 觀念과의 關係를 나타내고 있다. 그렇지만 악센트는 champs 위에 놓여진다. 그래서 그 악센트法은 音節과 낱말에 대해서 言及하고 있는 것과 完全히 一致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仏語의 리듬은 屈折에 있어서도 oxyton 이다. 現代仏語와 그에 先立되는 諸段階와를 比較해 보면 現代 仏語는 完全히 라틴語와 對立되고 있으나, 古代仏語가 中間的인 一段階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古代仏語는 語尾變化가 매우 강한 生命력을 가지고 있었고, 逆으로 冠詞의 使用은 아직 그만큼 固定되고 있지 않았다. 요컨대 古代仏語는 두개의 體系에 加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動詞가 나타내는 樣相은 名詞의 樣相과 매우 類似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예컨대 가장 잘 使用되는 時制中에 直說法現在를 예로 들어보면, 그 活用을 je chante, tu chantes, il chante, on chante (이 形은 점차로 nons chantons 으로 代置되고 있다.)

vous chantez, ils chantent 이다. 人稱은 一種의 接頭辭 (=主語人稱代名詞)에 의해서 特別히 區別되지만 다른 한편 屈折은 아주 사소한 것이 되고 있다. 半過去에 대해서도 事態는 同一하다. 여기서도 또한 限定詞가 被限定辭에 先行하고 있다. 그러나 라틴어와 古代仏語에서는 形態가 語尾變化로 區別되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主語人稱代名詞가 없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動詞의 活用에 있어서는 時代에 뒤떨어진 綴字가 순수하게 虛構가 된 語尾變化를 維持하고 있다. 그러나 仏語에는 母音轉換에 의해서 人稱이 變하는 많은 動詞가 아직 存在하고 있다. Ex: je peux - vous pouvez, il vaut - ils valent etc. 口頭言語의 仏語에서 생긴 時制는 다섯 가지의 直說法이며, 接統法 現在, 두가지 條件法 및 命令法이다. 단 接統法 半過去는 거의 死滅되고 말았다. 그러나 仏語는 이러한 貧困한 現象을 벗어나기 위해서 J'ai eu chanté 라고 하는 重複合過去를 만들어 냈다. 끝으로 上述한 直說法時制가 똑같은 生命力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點이다. 예컨대 單純未來形이 새로운 形成法, 그 價值가 처음에는 叙法的이었던 迂言法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다는 點이다.

Ex: ① Je chanterai → Je vais chanter

→ Je suis en passe de chanter

→ Je suis sur le point de chanter

→ Je suis près de chanter

② Il pleuvra → Il veut pleuvoir (東部地方에서)

Ⅶ. 統辭法

仏語 文章의 構造, 特別히 語順은 嚴密하게 固定되고 있다. "le perè punit le fils" 라는 文에서는 두개의 名詞의 位置가 그들 名詞가 놓여진 關係를 表示하고 있다. 따라서 仏語는 被制辭를 包含하는 文의 主語가 動詞에 先行되고 被制辭가 動詞에 뒤따르는 法則의 適用을 免치 못한다. 이와같은 語順은 어떠한 混同을 일으키지 않은 경우를 除外하고는 狀況을 나타내는 表現으로 始作되는 大部分의 文에 있어서까지도 維持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語順을 直接的 또는 前進的이라고 불을 수가 있을 것이다. 文의 各部는 事件이 進行되는 順序로 配列된다. 一例로 J'écris une lettre à mon ami 라고 하는 경우 편지는 내가 쓰는 行爲의 結果에서 비롯된 것으로, 다 쓰고나면 나는 그것을 친구에게 보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方法以外에 論理的인것은 없을 것이다.

事實上 다른 言語에서는 感情이 文의 構造에 끼어들면 語順을 顛倒시킬 수가 있으나, 仏語에서는 스스로 택한 길을 밟아가는 일은 거의 없다. 仏蘭西人은 情念에 左右되어 自身을 顛倒시킨다든지, 感情의 順序에 따르는 것을 無益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즉 仏語의 統辭法은 혼들이

이지 않는다. 이와같은 觀點에서 仏語의 永遠한 基盤인 놀라운 明晰性이 由來되는 것이다. 또한 仏語는 初等幾何學 다시 말해서 單純한 直線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여겨진다.

Charles Bally도 이와같은 型の 構造를 線的(linéaire)이라고 言及하고 있다.

“Les signes sont linéaire lorsqu’il se suivent, sans se compenetrer sur la ligne du discours”⁵⁾

날말은 觀念 그 自体밖에는 表明하지 못하며, 觀念과 다른 觀念과의 關係는 아무것도 나타내지 못하며 모든것은 語順의 維持, 文의 相違한 要素의 맞물림에 依存하고 있다. 이러한 分析的인 構造는 날말에서 그 自由를 박탈해 버린다. 그러한 點에서 독일어와 붙어는 對照的이다.

“Gestern hat mein Freund seinem Vater einen Brief geschriebien” (어제 내친구는 그의 아버지에게 한통의 편지를 썼다.) 여기에서 動詞 hat geschriebien은 두가지 部分으로 分解되고 있다. 그 두가지 部分은 한쪽이 거의 文頭에 다른 쪽은 文末에 位置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의 線을 그 出發點에 돌아가게 하는 曲線과 같은 것이다. 독일어의 文은 極히 總合的이다. 그것은 여러가지 方法으로 構成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語尾變化가 保存되고 있기 때문에 각 날말이 自己속에 觀念과 關係되는 表現을 共有하고 있기 때문이다. 半世紀後부터 仏語에도 可能한 限 主語의 倒置가 行해지는 傾向이 많아졌다. 그래서 仏語의 文은 보다 활발해지고 多樣한 樣相을 지니게 되었다. 一例로 特히 運動을 나타내는 動詞가 行爲中에 進展을 나타내는 경우 그 動詞는 기꺼이 主語앞에 位置한다. (Ex: Vint le jour où……) 또한 文頭에 位置한 副詞도 倒置를 誘導한다. (Ex: ① Dehors régnait une douceur singulière, ② De ce jour date sa haine)⁶⁾

倒置는 動詞의 概念 또는 主語를 強調시킬때 使用된다. 그렇지만 名詞로 나타낸 直接目的語가 있기 때문에 倒置는 不可能하게 된다. 構造上 한층 多樣性이 豊富하게 되었으나 仏語의 文章은 이미 18世紀에 確認된 同一한 直線에 따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嚴密히 固定된 正常的인 仏語文章의 構造는 感動的인 要素에 의해서 흔히 뒤집힌다. 이 要素는 文의 分節을 誘導하는 경우가 있다. Ex ① Des joies, tu en as eu beaucoup. ② On en parle, de ce flirt.

③ Brisée, je le suis déjà⁷⁾

이와같은 文의 解體形은 表現에 전혀 特殊한 움직임을 浮影시키며, 또한 聽取者의 注意를 換氣케 하는 커다란 長點이 있다. 浮影시키는 文의 要素는 自由이며, 文頭에 位置하거나 또는 文末

5) Charles Bally : linguistique générale et Linguistique Française (3 éd), p.144. Franche Verlag, Bern

6) R. Le Bidois : L'inversion du sujet dans la prose contemporaine, Paris, D'Artrey, 1962.

7) Marie-Louise Müller-Hauser : La mise en relief d'une idée en français moderne, Genève-Erlenbach, 1943,

에 位置할 수도 있다.

Ex : C'est stupide, cette idée. ou cette idée, c'est stupide.

이와같은 分節은 C'est que 라고 하는 文法化된 迂言法보다도 부드러운 表現方法이 된다 그것은 다른 要素가 叙述되고 있는지 아니든지간에 아무튼 그것과는 關係없이 文의 어떠한 要素에도 浮彫시킬 수가 있다고 하는 利點을 가지고 있다. 勿論 이러한 形態를 취한다 하더라도 分節은 傳統的인 文의 테두리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것은 事實이다. 왜냐하면 分離되어 一種의 間投詞를 構成하고 있는 要素가 代名詞에 의해서 文中으로 되돌아 가기 때문인 것이다.

Ⅷ. 프랑스語의 性格

仏語는 靜的인 言語 다시말해서 安全되고 持續되고 있는것을 把握하여 表現할 수 있는 言語라고 말해지고 있다. 그것은 더욱 動的인 言語 즉 事物의 進展을 나타내는 言語인 독일어와는 對比現象을 이루고 있다. 勿論 이와같은 比較가 相對的인 價值만을 지니고 있는 것은 再論을 할 必要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對立이 一面의 真理를 가지고 있는것은 否定할 수가 없을 것이다. 事物에 變化나 生成 또한 活動을 나타내게 하는 것은 動詞다. 그런데 特異할만한 對比現象은 仏語에서는 독일어에 비해서 훨씬 작은 現象을 이루고 있다는 事實이다. 우선 仏語의 動詞는 독일어의 動詞보다도 무언가 한층 抽象的이며, 紐앙스가 결핍되고 精密性도 모자란다. 그것은 독일어의 text를 仏訳할 必要가 있을 때 쉽게 느껴지는 일이다. faire는 tun (하다)으로 또는 machen (만들다)로 對應할 수가 있고, 게다가 붙어에서 이들 독일어의 두 動詞간에 極히 微妙한 紐앙스를 全然 表現할 수가 없다. reiten (말을 타고 가다), fahren (차, 또는 배를 타고 가다) gehen (걸어서 가다), 에 대해서 붙어에서는 aller à cheval, aller en voiture, aller à pied 라고 表現할 수 밖에 없다. 요컨대 이들 세가지의 移動方法의 相違는 名詞에 의해서 나타내고 있다.

stehen (서 있다), sitzen (앉아 있다), liegen (누어 있다) 에 對應하는 붙어는 繫辭의 動詞 être를 사용해서 거기에 形容詞 또는 副詞 (debout, assis, couché) 등을 붙여야 한다. 그러나 古代仏語에서는 ester, seoir, gesir 라고 言及해 왔다. 이와같이 動詞에 對해서 古代仏語가 豊富했던 點에 反해서 現代仏語는 貧弱하다는 點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런데 仏語의 特徵의 하나는 事件이나 行爲를 動詞보다는 名詞로서 表現하는 傾向이 濃厚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傾向은 特히 19世紀에 와서 더욱 濃厚해졌다.

E. Legrand는 그의 "La stylistique française" (프랑스 文体論)에서 다음과 같이 名詞使用의 構文을 言及하고 있다.

- 1) L'exploitation s'étend considérablement.
→ L'exploitation prend une extension considérable.
- 2) L'ennemi sent qu' il a trop peu de forces..
→ L'ennemi sent l' insuffisance de ses forces.
- 3) Ils cédèrent parce qu' on leur promit formellement qu'ils ne seraient pas punis.
→ Ils cédèrent à une promesse formelle d'impunité

이와같은 構造는 運動의 表現을 瞬間的인 視覺的 要素로 바꾸어 놓고 있다. 動詞란 다이나믹한 表現이기 때문이다. 勿論 다른 時代에도 名詞構文의 使用을 찾아볼 수는 있다. 一例로 L enflure des ballons 代身에 les ballons enflés라고 말하는 경우라든지 Sa main branlait l'horreur d'une grand hache 代身에 une hache horrible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따끔 찾아볼 수는 있으나 이러한 名詞構文은 19世紀後半以後에 와서 認定을 받기에 이르렀다.⁸⁾ 이러한 構文에 대한 流行의 原因은 一部分 現代生活의 急速한 리듬에 근거를 두고있는 것이다. 新聞記事의 타이틀은 記事全部를 읽지 않더라도 發生한 事件의 概要를 理解할 수 있게 한다. 그것은 또한 mémo나 수첩의 文体이기도 하다.

Ex: Départ à 3h., arrivée à Bordeaux à 8h., dîner à l'hôtel de Commerce,
avec M. X. : le soir au cinéma

이와 같은 現狀은 自然主義作家들에게 빈번히 使用하기에 이르렀다. 왜냐하면 自然主義作家들은 될수있는 限 確實한 事物의 비존을 주려고 努力했기 때문이다. 또한 自然主義文學은 事物의 觀念을 주려고 하지않고, 단지 事物이 感覺에 미치는 直接的인 印象을 描写하는 데 있었다. 一例로 Goncourt 兄弟의 小說中에서 다음과 같은 純粹한 名詞文을 찾아볼 수 있다.

"Tout à coup le tintement à une sonnette, retentissant. issant."

요컨대 이와같은 現狀은 仏語가 19世紀에서 20世紀에 걸쳐 100年間 점차로 通俗性에 優害되고 있었다는 傾向을 立証해 주고 있다. 또 한가지 仏語의 特色은 仏語가 名詞構文을 즐겨 使用하는 過程에서 qui나 que를 本能的으로 싫어하는 傾向을 보여주고 있다. 17世紀 古典的인 文에서는 關係代名詞와 接統詞 que가 매우 빈번히 使用되었다. 이들 關係代名詞나 que는 文中에서 接統點, 分節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接統點, 分節에 의해서 總合文에는 知的이며 正確한 構造, 有機的인 關係에 의한 明瞭性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와같은 17世紀의 古典語를 口頭言語에 의해서 부드럽게 描写하려고 試圖한 作家가 Flaubert였다. 口頭言語는 確實히 qui나 que와 같은 接統詞나 關係代名詞를 멀리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숨이 찬 긴 總

8) Alf. Lombard : Les constructions nominales dans le français moderne, Paris, 1930.

合文을 싫어하기 때문인 것이다. 그 때문에 Flaubert 은 關係代名詞와 que 를 嫌惡한다. Thi-
baudet 는 “關係代名詞는 Flaubert 의 惡夢였다”라고 言及하고 있다. 이에 對해서 Flau-
bert 은 그에 대한 代用物을 模索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 代用物으로써 나타난 것이 現在分詞인
것이다. 一例로 그는 La tentation de Saint - Antoine (I) 中에서 다음과 같이 叙述하고
있다. “Sans cesse il y avait quelques batailles dans les rues à cause des
Juifs refusant de payer l'impôt ou des séditieux que voulaient chasser les
Romains”

여기서 關係代名詞文의 하나가 現在分詞를 사용하고 있는 點에 注意를 기울이게 한다. 그 理
由는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두개의 動詞 즉 refuser와 vouloir 간에 매우 뚜렷한 意味上的
差異點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refuser는 否定的인 價値를 가지고 있어서 現在分詞로
되고 있으나, vouloir는 積極的 보다 活動的인 意味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半過去時制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그 紐양스는 現在分詞의 文體的 價値에 잘 對應시키고 있다. 現在分詞는 定形
動詞 verbum finitum(直說法,接統法,條件法,命令法에 놓여진 動詞)보다도 힘이 弱하고 堅
固치 못하다. 그러기 때문에 Flaubert 은 이와같은 觀點에서 現在分詞와 關係代名詞의 使用을
區分시켜 現在分詞를 즐겨 使用하는 傾向을 취하고 있다. 現在分詞는 關係代名詞를 避하고자 하
는 전혀 否定的인 存在理由만을 가지고 있는것은 아니다. Flaubert 은 文中의 여러가지 部分에
紐양스를 添加시키고 必要한 部分에는 弱함과 부드러움을 주며 그 現實性을 약하게 하는데도 또
한 現在分詞를 使用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動詞의 使用을 가능한 피하고 名詞構文을 즐겨 사
용하려는 傾向이라든지, 또한 接統詞나 關係代名詞를 피해서 現在分詞를 使用하려는 傾向은 口頭
言語에서 많은 啓示를 받고 그것에 適用하려는 意圖라고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現狀
은 文學語를 日常生活의 水準으로 낮추게 하는 通俗性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大衆의 精神狀況
에 適合한 形態로 향하려는 言語의 進化는 그 結果로서 文學界로 부터의 不滿을 惹起시켰다. 言
語의 通俗化는 作家들을 憤激케 했다. Malarmé 나 Valéry는 作品을 위해서 特別한 言語
즉 一種의 秘密言語를 만들어냈다. 他人에게 전혀 理解할 수 없는 言語만을 使用한 것은 아니지
만,그와같은 言語를 相互 使用함으로써 그들은 文學語를 特殊言語로 구축하려고 試圖했다. 하지
만 文學이란 一般生活과의 接觸없이 生命이 없으며 그렇지 않으면 硬直狀態에 빠지고 말기 때
문이다. 그 때문에 特殊한 文學語는 오래 持續할 수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文學的인
階級上에는 '國民生活'이라고 하는 커다란 흐름이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래서 그 흐름이야말로
言語가 表示하는 樣相을 決定하기 때문이다.

X. 結 言

仏語는 점차 靜態의 言語로 化하고 있다. 動詞가 支配的인 他國語를 動態의이라 볼 때, 이와 對立된 現象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래서 한 言語가 어느 程度 어떤 世界의 表象, 事件에 대한 어떤 精神의 態度를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다면, 仏語의 性格은 觀察者로서 世界 속에 몸을 담고, 응시하며, 推理하고 分析하는 傾向을 反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 現代 仏語의 獨自性은 大部分 두가지의 傾向 즉 分析的이고 總合的인 傾向間的 均衡에 있다고 본다. 그러면서도 總合的인 傾向보다 分析的인 傾向에 훨씬 치우치고 있는 現象이다. 仏蘭西人의 精神은 考察하는 現實을 分解하기를 좋아하며 또한 語種을 解剖하여 語種間的 關係를 分析的으로 表現한다. 그러나 他國語는 보다 總合的인 方法으로 이들의 要素를 表示하는 傾向이다. 仏蘭西人의 精神의 特徵의 하나는 무슨 일에도 合理的인 秩序를 내세우며 明瞭, 纖細, 優雅한 表現으로 낱말사이의 關係를 明確히 또한 詳細히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점에 있다. 그러기 때문에 事物을 表現할때의 낱말의 語順이 嚴密하게 規定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仏語는 前進的이라고 할 수 있다. 仏語는 文中에서 分子의 要素가 最大限으로 分解되어 前進的으로 理解될 수 있도록 並行되고 있다. 一般的 規則에서는 被限定詞가 限定語앞에 位置하게 된다. 독일어나 영어는 그 反對現象이다. 一例로 독일어는 흔히 다음과 같이 表現하는 경우가 있다. "Gebundene Bücher verkauft man dagar nicht" (그대로 仏語로 옮겨면 Reliés livres vend-on du tout pas) 그러나 仏語의 正常的인 語順은 "On ne vend pas du tout de livres reliés" 라고 表現한다. 낱말의 連鎖에 대한 仏語의 前進的인 性質은 音聲上에서도 나타난다. 強勢악센트는 實際 語尾에 位置하며 統辭分子속에 끼게되면 각 낱말에 놓여지는 악센트는 앞으로 나아갈수록 確實해진다. 보다도 強勢的인 악센트는 分子의 最後의 낱말에 붙는 악센트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文의 要素의 極端的인 分解에서 그와같은 要素를 複合的인 總合單位로 gr-oupe를 再構成시킬 必要性이 있게되는 것은 當然한 結果일 것이다. 그 理由는 現代 仏語에서 統辭分子에 대한 重要性이 날로 매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傾向을 助長하는 原因이 다른 側面에서 考察해볼 수도 있다. 낱말이 뚜렷한 外觀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 結果 自主성을 잃게되는 原因은 ① 仏語의 낱말이 짧다는것, ② 強勢악센트가 약하다는 점, ③ 非複合性이 많다는 점이다. 독일어는 낱말이 節의 要素를 언제나 自己周邇에 結晶시키며, 때로는 매우 길어지는 경우가 있으나, 仏語는 낱말이 分子속에 그 모습을 감추고 만다. 다시 말해서 分子가 점점 言語單位가 되어가는 現象이 되고 있다. 實際로 分子 그 自体가 分析的이며 前進的인 語順에 따르고 있다. 이와같은 分析的인 傾向의 優勢가 붙어있는 特有한 特徵을 이루고 있는 소위 構文上의 明確性과 嚴密性을 나타내게 하는데 貢獻하고 있다. 그러나 그 代身에 表現力을 弱化시키고 반드시 利點이라고 할 수 없는 抽象化의 傾向이라고 하는 結果가 惹起되고 있다. 요컨대 現代 仏語는 理性의 言語다. 그러나 矛盾과 不合理性도 存在하고 있다. 게다가 文을 그 要素에 明確히 分解시키는 데 따라 多樣的인 뉴앙스를 가질 수 있는 可能性이 많다. 그것을 捕捉하기 위해서는 纖細한 精神

과 特히 言語에 대한 柔軟性을 充分히 갖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知的인 言語는 시들어 버리는 일이 없는것 처럼 언제나 새롭고 具體的이며 表現力이 있는 要素를 받아들일 必要性이 있다. 仏語는 外國語의 語彙를 汲取하며 그것을 自發的으로 行하고 있다. 語彙란 言語의 深奧한 精神을 構成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言語의 獨自性은 그 文法體系에 있는 것이다. 言語에 따라서는 아주 또는 部分的으로 借用語彙를 利用하면서 훌륭하게 自己것을 保存하는 言語도 있다. 言語란 그 固有의 養分만으로 成長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存続하며 發展시키기 위해서는 外部의 要素를 받아들일 必要性이 있다. 借用은 言語에 대한 生命의 正常的인 機能인 것이다. 重要한 것은 그 言語가 自己의 固有의 法則에 맞추어서 外來의 要素를 同化할 수 있을 만큼의 生命력을 갖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仏語의 同化能力은 놀랄만하다고 보고싶다.

— Résumé —

Etude sur la situation actuelle et la caractère de la langue française

Ko, Won Hee

L'originalité essentielle de la langue française attache de l'importance à la grammaire en comparaison de la prononciation ou l'orthographe.

Ce n'est pas la totalité de cette règle qui est plus ou moins habituelle ou sans contrainte, mais nous le trouverons dans la valeur grammaticale qui règne des mots par le système du mécanisme naturel.

Mais la langue n'est pas ce que plusieurs éléments arrangent, c'est-à-dire, ce n'est pas le système habituel et fixé. En d'autres termes, c'est l'organisme vivant. Pour que nous comprenions la langue exactement et complètement, nous devons aussi réfléchir sur la langue faisant fonction plus que tout. Quand nous parlons de la construction d'une langue, nous pourrions définir la caractère de cette langue par la caractéristique commune aux quelques langues.

Ces jours-ci, plusieurs langues européennes ont été maintenues cette vitalité par un contact contenu pendant 2000 ans à peu près.

Et aussi il est de notoriété publique que les relations entre un peuple et autre peuple ont fait influées sur la évolution de leurs langues.

En réalité, c'est très important au point de vue de la linguistique comparative de considérer le courant et la tendance commune aux quelques langues européennes.

L'individualité du Français moderne est généralement de garder l'équilibre entre la tendance analytique et la tendance synthétique.

Mais pourtant elle est inclinée à celle-là beaucoup plus qu'à celle-ci.

C'est pourquoi l'esprit de Français aime décomposer la réalité considérant, et aussi prendre plaisir à représenter analytiquement les relations parmi les espaces grammaticales.

En somme, le but de ce mémoire est dans l'essai d'éclairer la caractère particulière de la langue française. Par conséquent, j'ai réfléchi sur le point de vue de la synchronie, c'est-à-dire l'observation comparée avec les autres langues (anglais, allemand, italien, espagnol etc.)

Voici ce que j'ai considéré:

- (1) Sur le point de vue de la phonétique;
- (2) La morphologie;
- (3) La stylistique;
- (4) La syntaxe;
- (5) Sur la caractère particulière de langue française.